

# 海外建設進出과 中東의 이모저모

—사우디아라비아 및 바레인國 紀行—

崔 榮 博\*

## 머 리 말

우리나라 海外建設進出이 1976년부터 本格化하여 1977年度 現在 建設輸出實績이 85億달러에 도달하고 既成高 實績은 無慮, 總 9,203億 9,000萬원에다 受領額은 7,878億 8,026萬원에 도달하였다.

이와같이 海外建設輸出이 매우 活發하게 進行되고 있음은 우리 全國民들의 一大快事가 아니될 수 없다.

한편, 이와 함께 海外部門의 通貨增發壓力과 建設資材 및 人力의 國內需給 차질 등의 여러 問題點 發生으로 海外建設輸出에 對한 基本施策의 確立이 再考되고 있는 것도 事實이다. 筆者는 既成高의 46.1%로서 4,426億 3,700萬원을 記錄하여 77年度 第1順位 業體가 된 現代建設의 主선으로 지난 1月 14일부터 15日間 “中東봄”의 建設現場인 사우디를 워시하여 바레인, 쿠웨이트 및 東南亞의 말레이지아 등을 高루 訪問한 바 있다.

지금 先進各國에 深刻한 總濟不況의 바람이 불고 있는 이때에 사우디를 워시한 이곳 中東은 別天地였다. 冬季에도 30°C 以上の 酷暑에다 無味乾燥한 砂漠인데도 不拘하고 “脫오일 政策”과 함께 中東各國에는 國土建設의 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으며 어느 곳이나 景氣 좋은 이야기 뿐이다. 筆者가 보기로는 中東建設市場은 世界에서 最高라 하지만 工事環境치고는 最惡이라고 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異域萬里, 他國에서 現代建設을 워시한 우리나라 66個 建設業體가 過去부터 우리와는 아무런 緣故도 없었고 오히려 英, 佛 등 유럽의 基盤이었던 이곳에 進出하여 탐험하는 그 모습은 참으로 巨創한 歷史的 한 瞬間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적어도 앞으로 10年間은 中東을 워시한 海外建設市場은 우리의 큰 市場이며 그의 개척을 위해 全力 投球해야 할 것으로 본다.

筆者는 여기에 여러 海外建設市場을 돌아보고 各國

의 이모저모를 紹介하고자 한다.

## 1. 中東의 特徵 그 石油問題

“中東” 또는 “中近東”이라는 名稱은 西유럽을 中心으로 하는 立場에서 極東에 對比하여 옛부터 使用된 地名으로 알고 있다.

中東은 아시아 大陸의 가장, 西쪽에 위치한 터키에서 시작하여 아프카니스탄 까지의 16個國을 말한다.

그러나 넓게는 이집트에서 모로코까지 北아프리카 6個國을 포함하여 22個國을 中東이라고 稱칭하고 있다.

中東地域의 特色은 거의 모든 地方의 年雨量이 200 mm 이하의 乾燥된 酷暑地이고 그늘에서도 40°C에 가깝고 따라서 이 地方의 生活環境은 매우 가혹한 것이 특색이다.

이 地方은 古代 이집트 및 메소포타미아 文化 등으로 世界文明의 發祥地였으나 中世以後로는 유럽列強의 支配下에 있었으며 大部分의 나라가 第2次大戰 後 獨立한 新生國으로 所謂 發展途上國群이다.

政治的으로는 아랍과 이스라엘의 對立狀態로 世界에서도 가장 不安定한 地域의 하나로 되어 있다.

또한 經濟的으로는 膨大한 石油埋藏量을 갖고 있으며 오늘날 產油國으로서 石油을 통하여 世界經濟의 動向에 壓倒의 影響力을 行使하고 있는 立場에 있다.

1973년의 第4次 中東戰爭과 이에 계속된 世界的인 石油波動이 發生할 때까지 中東은 近代世界政治面에서나 經濟面에서나 焦點밖에 없었으며 이때까지 우리나라에서는 中東은 아라비아·나이트 이야기에서 상정되는 먼 砂漠과 오아시스를 가진 異域이라는 印象 이외 別로 關心을 가진 바가 없었다.

中東은 石油危機以後 한번에 우리를 生活에 密接한 關係를 갖는 地域으로 出發하여 76年 以後 中東建設과 함께 수많은 建設機能工 및 技術者의 大學進出로 우리 經濟에 큰 關心성을 갖게 되는 나라로 登場하게

\*本學會前副會長 高麗大學校工大教授(理學博士 技術士)

되었다.

1948年 이스라엘의 獨立 後 아랍諸國과 이스라엘은 4次에 걸친 戰爭을 通한 이른바 中東紛爭으로 現在까지 계속 世界的인 複雜한 政治 問題지구로 부각되고 있다.

이 起源은 19世紀末 發生된 유대人的 故鄉復歸運動 即 "시오니즘運動"으로 英國의 支援으로 發展되었으며 나아가서는 2次大戰 後 이스라엘의 建國이 이루어지자 이곳 팔레스타인의 땅에서 많은 아랍인이 隣接 아랍各國으로 逃避하게 되었다.

그 以後 아랍諸國은 팔레스타인의 땅을 이스라엘에서 찾는 것이 "아랍의 大義"라 하여 이것을 最大의 目標로 하였으며 이 때문에 4次에 걸친 中東戰爭이 發生한 것이다.

"아랍의 大義"를 實現키 위하여 아랍諸國은 그들이 가진 最大의 武器인 石油을 政治 外交의 道具로 하였으며 이는 第4次 中東戰爭을 契機로 하는 아랍 產油國에 의한 石油戰略의 發動原因이 되었다.

이것은 石油의 禁輸를 포함한 供給制限과 原油價格의 大幅引上이라는 두가지 方式으로 實施되어 이 結果 先進國 및 開發途上國을 不問하고 世界의 거의 모든 나라는 經濟成長率의 減退, 國際收支의 惡化,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暴進이라 하는 三重苦에 悩殺하게 되었다.

世界 各國이 모두 앞으로 20~30年間은 에너지源을 主로 石油에 依存한 展望이기에 中東產油國은 世界 石油埋藏量의 6割, 輸出量의 9割을 占有하는 點에서도 明白한 바와 같이 앞으로 世界經濟에 多大한 影響力을 가지는 立場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石油輸入의 거의 大部分을 中東에 依存하고 있는 狀況에 놓여 있으므로 사우디, 이란 및 쿠웨이트 등 中東과의 友好關係의 維持, 나아가서 이를 위한 中東에의 海外建設輸出에 對하여는 그 促進에 特別한 配慮를 하여야 하며 이 地域의 政治, 經濟 및 社會動向에 細心한 注意를 기울일 必要가 있다.

특히 中東 各國은 모두 開發途上國이며 苛酷한 氣候 條件에다 克服하여야 할 勞働力이나 技術力의 不足을 지닌채 現在, 脫오일 政策과 함께 國土開發에 위한 建設에 邁進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中東各國이 內包하고 있는 問題點을 把握하고 그 處地와 環境을 理解하여 그들이 우리나라 韓國에게 무엇을 期待하고 무엇을 要求하는가를 正確히 把握하여야만 비로서 그들의 信賴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이와같은 信賴關係에서 樹立된 石油의 安定供給確保는 우리의 經濟成長과 安定에 큰 擔保가 될 것으로 본다.

## 2. 世界第1의 石油輸出國 사우디 아라비아

原油의 價格引上으로 돈이 世界各國에서 쏟아져 오고 있다.

사우디의 石油埋藏量은 世界最大이고 지금과 같은 規模로 生産이 계속되어도 50~60年은 使用할 수 있다 한다.

또한 앞으로도 新油田 發見이 期待되고 있다. 하지만 먼 將來에는 石油가 枯渴될 날이 있을 것으로 사우디 人들을 覺悟하고 있다.

石油의 埋藏量이 有限하다고 한다면 이에 의한 收入도 언젠가는 단절되기 마련이다. 사우디의 꿈을 充足시키고 있는 아라비아. 나이트의 이야기와 같은 魔術의 기쁨도 고갈이 되어 神通力이 없어질 것에 대비해서 現在 사우디는 1年前부터 갖가지 生産量을 줄이기 始作하였다고 한다.

中東에 있어서 이집트가 아랍世界의 政治와 文化中心核이라 하면 사우디는 宗教와 石油生産의 中心核일 것이니.

實際로 中東情勢는 이집트와 모슬렘의 宗主國인 King of Saudi Arabia(사우디아의 아라비아)의 움직임에 크게 左右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글자 그대로 사우디아의 아라비아란 意味로서 이 사우디아의 3千名이 나뉘는 王子가 하리드國王을 중심으로 이 나라의 實權을 掌握하고 있다. 聖地 메카를 가진 이 나라의 國王을 이슬람敎上의 指導者인 이마무를 兼職하고 이슬람敎 中에서도 가장 嚴한 戒律의 와하비派에 屬하며 體制的으로는 政敎混合의 形態를 取하고 있다

現在 近代化와 함께 國民의 信仰과 道德이 解弛되어 가는데 對하여 다시 새로운 對策이 강구되고 있다.

蹴球試合이 祈禱時間까지 계속되면 안 되므로 定한 時間보다 이르게 始作케 한 만큼 宗教를 重視하고 있다.

現代生活風潮를 取하면서도 사우디國의 原點인 이슬람敎의 精神만은 보다 嚴하게 保存코자 노력하고 있다.

다하란市場에서 한 青年이 아라비아 스타일의 白色 頭布를 비스듬히 써서 長髮을 보이려고 하고 黑色베일 모습의 女性의 치마 아래 지어광바지가 보이는 것 등에서 우리는 사우디의 傳統과 戒律이 함께 同居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슬람敎徒는 1日 5回 祈禱하지 않으면 안 된다.

新聞도 每日 地區別로 몇 分間의 祈禱時間을 알려고 그 時間이 되면 對話中의 官吏도 잠시 祈禱하는 곳에 간다.

道路上에 トラック을 세워두고 聖池 메카를 向하여 절을 하는 運轉士도 있고 學校에서도 6時間째 끝에 禮拜가 있다.

女性은 純潔을 지키기 위하여 家族外의 男性과는 隔離되며 外出時에는 검은 베일(Burka Cape)인 검은 천을 완전히 덮여쓰고 다닌다.

學校內에서 制服의 女學生도 校門을 나서면 마찬가지로 검은색의 服裝으로 바꾼다. 國民學校도 男女 授業을 따로 받을만큼 徹底하다.

新婦도 結婚式을 할 때까지는 자세히 얼굴을 볼 수 없다.

여성의 職業은 女性相對의 女醫師나 教師에 限定된다.

사우디는 地理的으로 아시아大陸의 西南端에 있는 아라비아半島의 約 4/5를 차지하며 北으로는 쿠웨이트 이락, 요르단, 西로는 紅海, 東으로는 아라비아半島(이란人은 페르시아半島이라 함), 캐나다, 아랍首長國聯邦 南쪽으로는 오만, 南北 에멘에 接하여 西유럽 全域보다도 넓다.

약 95%가 砂漠 및 禿山인 全國土面積은 約 215萬 km<sup>2</sup>로 南韓國土面積의 約 22倍이다. 하지만 國境이 明確하지 못해 正確하지는 않다.

人口는 1974年 조사에 의하면 約 700萬이라 하나 77年 現在 UN에는 800萬으로 報告되고 있으며, 1km<sup>2</sup>當 人口는 4人으로 매우 人口密度가 稀薄하지만 居住適正地域이 限定된 까닭에 제타, 리야드, 다하란 등 都市에 있어서의 人口稠密性은 심하다.

사우디 全國土는 地域的으로는 비지트, 헤자쓰, 아시루, 하사이 등 4地帶로 區分되고, 行政的으로는 16 行政區로 되어 이중 聖地 메카와 제타 兩市를 包含한 메카區와 메지나區 여기에 首都 리야드區, 페르시아灣 東部區의 4 行政區는 國王直屬管轄區로 되어 있고, 其他 區는 廣範하게 自治權이 認定되고 있다.

비지트地域은 사우디의 中心에 위치하고 東西 約300 km, 北으로는 이락 및 요르단의 國境方面에서 南으로는 야루부부 하이라 砂漠에 도달하고 또한 首都 리야드가 있다.

헤자쓰地域은 紅海沿岸에 있는 西部地域이며 제타, 메카 및 메디나市가 있는 테이하마 平原이 있고 그 背後에는 헤자쓰山脈으로 海拔 1000~3000m까지의 山峯이 連續되고 있다. 아시루地域 역시 紅海沿岸, 헤자쓰의 南쪽으로 가로놓인 地域으로 比較的 雨量이 많고,

사우디에서는 가장 큰 主要農業地帶를 形成하고 있다.

하사地域은 아라비아 東部地區로서 다하란市 周邊의 ALMCO의 大油田을 위치하여 産業上으로도 중요한 地帶이다. 사우디의 막대한 富源이 거의 여기에 存在하며, 首都 리야드나 商業都市 제타의 繁榮도 東部の 石油埋藏量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이에 關聯되어 사우디 主要 政府官廳은 수도 리야드에 있는데 對하여 外務部와 外國大使館은 紅海沿岸의 商業都市 제타에 있다.

하지만 사우디는 1976년부터 5年 以內에 이들 外交關係建物を 모두 리야드로 移轉시킬 것을 決定하였다 한다.

또한, 이슬람敎의 聖地 메카 및 메디나에는 이슬람敎徒以外는 出入이 禁止되고 있다.

氣候는 대체로 大陸性氣候이며 乾燥한 더위가 계속되고 海岸部는 高溫多濕하다. 5月부터 9月까지 가장 더운 時期이며 氣溫은 50°C에 달한다.

中東各國은 모두 氣候條件이 매우 苛酷하지만 그 中에서도 사우디, 카다루, 쿠웨이트, 바레인 및 이락 등의 페르시아灣沿岸國과 北아프리카의 수단 등이 甚하다고 한다.

사우디국왕은 立法, 司法, 行政의 三權 支配者이며 支配는 聖典 코란에 基本을 둔 이슬람의 法律 Shariah에 의하여 執行되어 無制限 絶對的이라고는 할수 없다 法律 Shariah는 모슬렘의 長老會의 解釋에 따라서 運用된다.

男女 王族에서 選定된 國王은 兄弟承繼를 傳統으로 하고 있는데, 1964年의 사우드王으로부터 파이잘王의 王位 移讓도 王族과 長老會의 一致된 決定에서 이루어졌다 한다.

國王은 1953年 設置된 閣僚會議에서 行政面에서의 補佐를 받는다.

閣僚會議은 同時에 立法面에서 國王에 法案을 提出하는 機能을 가지며 이 法案은 國王의 裁可後에 勅令으로 頒布 發効된다.

閣僚會議의 議長은 首相이고 副議長은 第1副首相(兼 內務相)으로 國家警備司令官을 兼務하는 第2副首相 이하 21名의 長官이 그 멤버이다.

사우디 國民의 大部分은 베트인(遊牧民)이며 典型的인 아랍人이다. 하지만 奴隸로 끌려온 아프리카 黑人의 子孫, 經濟的, 宗教的 理由에서 流入한 隣近 各國의 아랍人 및 이슬람敎徒도 많다.

특히, 스란人은 이 나라에 도착한 瞬間부터 空港 職員이 되고, 또한 파키스탄人 中には 巡札로 온 뒤에

이 나라에 土着하는 수도 상당히 있는 모양이다.

國民一般의 知的 및 生活水準은 어느 程度인지 具體的으로 明確하지 않다.

하지만 知的水準의 바로미터인 教育에 사우디는 가장 力點을 두고 있으며, 公立校는 國民校에서 大學까지 無料이나 女子教育만을 文教部의 管轄이 아니고 獨立된 女子教育廳에 속하며 教育內容과 水準이 複雜하다.

住民의 壓倒的 大多數는 이슬람敎 中에서도 正統인 신니派 모슬렘인데, 사우디의 이슬람敎는 正統派 中에서도 가장 戒律이 엄한 와하부派이며 이 점에서 이 나라는 이슬람 諸國의 宗主國이라 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아라비아半島는 옛부터 種族에 속하는 아라비아 遊牧民의 居住地로 오랜 세월 外界와의 接觸이 없었고 다만 交通의 要衝으로서 發達한 聖地 메카市 정도이다.

西紀 570年 메카에서 誕生한 豫言者 마호멧트가 7世紀에 이슬람敎를 創設했고 그 후 유럽 아시아 大陸에 걸치는 一大帝國을 이룩한지 얼마 안 되어 그 中心이 北쪽 다마스쿠스로, 또한 바그다트로 이동하여 아라비아半島는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

하지만 사우디家は 15世紀以後 계속 아라비아半島를 支配하여 왔다.

只술의 하리드國王은 當年 64才로 1975年 3月 파이잘國王이 한 王族의 兇彈에 의하여 피살된 후 即位한 王弟로서 行動의인 후아하트皇太子 兼 第1 副首相 補佐 아래 行政, 司法機關의 整備, 教育, 保健, 社會保障制度의 實現 經濟開發分野에서 近代化를 推進하고 있다.

沃土를 삼키는 砂漠, 暴風아래 自然과 人間과의 苛酷한 싸움, 人間과 人間과의 싸움, 物件 하나 하나에 목숨을 걸었던 지난날의 時代를 그들은 자히리아(無知, 野蠻)라고 말하고 있다.

無知이고 野蠻일 망정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全身全靈을 닦부딪친 아랍의 男兒와 이것을 바라보면서 몸부림치고 울부짖는 婦女子들이었으나 사우디의 子孫들은 只今 無限定의 油일 마니로써 莫大한 量의 建設資材와 機械를 港灣에서 陸揚하여 트럭에 싣고 內陸砂漠 開發터로 疾走시키고 있다.

자히리아를 脫皮하고 그들의 先祖가 一擧에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3大陸에 걸쳐 一大帝國을 擴大한 지난날과 같이 莫大한 돈, 物量計劃으로 한꺼번에 20世紀의 先進國을 實現코자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꿈의 成果與否는 그들의 唯一神 알라神만이 알고 있는지 모른다.

砂漠의 自然도 如前히 苛酷한 環境이고 四人까지 帶美를 許容하고 또한 女子를 隔離하여 검은 베일로 얼굴을 보이지 않게 한 옛 傳統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近代化와 함께 아랍世界에서 現代版 자히리아로 果然 脫皮가 可能한지는 생각을 아니할 수 밖에 없다.

廣漠한 砂漠을 우리 一行이 버스를 타고 無限히 걸쳐진 아스팔트鋪裝道路를 달릴 때 어슬렁 어슬렁 道路를 橫斷하는 낙타, 느슨한 波濤와 같은 砂丘에 자유롭게 먹이를 찾는 羊떼들, 그 중에 손에 銃을 쥐고 不動姿勢로 서 있는 外人把手兵의 모습은 대조적이었다. 한참 疾走하다 보니 突然히 나타나는 대추야자나무가 茂盛한 오아시스와 잔잔히 흐르는 오아시스에서 솟아나는 시냇물이 있고 참으로 砂漠에도 變轉하는 表情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石油를 위시한 資源, 經濟開發에 수반해서 都市化 現象이 불고 있지만 推計에 의하면 全都市人口는 全人口 30%의 정도 밖에 안 된다. 大多數는 如前히 베트우인으로 代表되는 遊牧 酪農業人이나 오아시스를 中心으로 한 農村 村落民인데 純粹한 遊牧民은 20% 정도까지 減少되었다 한다. 都市化가 가장 進展된 곳은 首都인 리야드(66.1萬人) 聖地和 港灣을 가진 메카(36.73萬人), 젓타(56.13萬人) 油田과 港灣을 가진 다만(12.8萬人), 다하란 등이다.

農耕地가 全國土의 1.7%인데 農村人口는 약 50%이다.

農牧業으로서 450萬頭의 羊과 山羊, 60萬頭의 낙타가 飼育되고 26萬톤의 대추야자 20萬톤의 小麥과 大麥이 收穫될 뿐이다. 사우디의 經濟는 그 全部가 石油에 依存된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이 나라의 石油生産은 1936年 東部地域에서 시작하여 世界第2次大戰後 急激히 發展하였다. 그 生産量은 1975년에 26億배럴로서 소련의 35億배럴, 美國의 31億배럴에 대하여 世界第3位 確認埋藏量에 있어서는 約 1,500億배럴로서 世界的 確認埋藏量의 1/5이다. 이와 같은 莫大한 石油生産量과 더불어 1973年以後 石油價格의 引上에 의하여 70년에 30億달러, 71년에 37億달러, 72년에 64億 달러인 石油輸出이 74년에 一躍 230億달러, 75년에는 약 260億달러로 上昇하였다고 推定되고 있다.

사우디와 74年豫算을 보면 280億달러의 歲入에 對하여 歲出은 130億달러만 計上하고 있으며 나머지 150億달러는 1976년부터 實施한 第2次經濟開發計劃을 위하여 留保되어 왔다.

1975年 5月 發表된 第2次經濟開發計劃(1975~80)의 投資總額은 1,440億달러에 이르는 野心的인 것으로서 사우디는 이 計劃에 의하여 工業化와 農業開發을 促進하면서 財政의 石油依存度를 낮추고 後進國에서

先進國으로의 成長을 圖謀하고 있다.

1,440億달 중 每年 280億달러가 投資되는데 實은 이것은 60年代의 사우디 10年分의 石油收入 合計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金額이다.

그 實施에 있어서는 매우 流動的이라고 볼 수 있다.

石油以前의 사우디에서의 生産物은 거의 없었다. 每年 1회 행하여지는 聖地 巡禮者들에 의한 直接, 間接의 인 돈에 依存하였다고 한다.

古代 사우디 南部가 農業地帶로 繁榮하여 隊商길로 發展할 때는 金, 銀, 銅이 產出되었다 한다. 實際 現在에도 石油以外에 鑛物資源이 매우 豊富하다는 것이 調査確認되어 産業프로젝트가 檢討되고 있다. 鐵은 제타쪽과 北部 다프크, 銅도 제타 北쪽, 岩鹽은 지잔과 아무 호발이 各 地域에서 調査檢討되고 있다.

사우디의 巨額의 石油收入은 사우디가 經濟開發에 必要한 資金을 上廻하고 있어서 現在 사우디는 다른 產油國과 마찬가지로 現在와 같은 世界的인 不況과 인플레이 時期에 現金을 保有하고 있는 것은 不利하다고 判斷하여 어떻게 하든 사우디의 工業化에 利用하고자 하고 있다.

이 까닭에 先進各國에 대해서 石油와의 交換으로 技術導入을 希望하고 있는데 實은 工業國으로서는 그 基盤이 너무 弱하다. 따라서 우리가 본 現狀으로는 商品의 流入이 현저한 것을 處到에서 볼 수 있었다.

實際 다하단 市內에서 보면 全世界의 모든 나라 商品이 無稅에 가까운 關稅아래 洪水와 같이 流入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3. 사우디의 國土建設과 人力

國土의 95%가 砂漠에다 禿山이므로 國土開發은 砂漠의 土地利用에서 出發한다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따라서 물의 確保가 絕對條件이 되므로 地下水探查 및 各 地域의 綜合灌溉水利 시스템開發과 함께 工業 基盤 및 大量의 工業用水와 生活用水를 供給하는 大規模 淡水化 裝置의 建設이 推進되고 있다.

各國의 産業開發協力 프로젝트로서 추진되어온 것은 大體로 다음과 같다.

美國: 地下水探查와 하라드地域農業開發

英國: 와이, 지잔 地域綜合 灌溉시스템

(西獨, 伊太利 共同參與)

西獨: 하라드地域 綜合灌溉시스템

(瑞西, 美國 共同參與)

합사地域灌溉시스템

제다 國際空港建設

電氣通信網開發(日本, 스웨덴, 노르웨이 共同參與)

日本: 다만地域 石油콤비나트

海水淡水化 플랜트

스파이탈 銅管製造工場

衛星通信

視聽覺教育 圖書館

이 外에 地域別 主要産業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리야드 附近: 空港擴張 및 整備

시멘트, 콘크리트工場

家庭電氣器具工場

食品加工(蓄殺包含)工場

제타附近: 道路의 擴張 및 整備

海水, 淡水化플랜트

시멘트工場

타이어工場

製粉, 食品加工工場

다만附近: 도크를 包含한 港灣擴張整備 製粉食品加工工場

지잔附近: 도크를 包含한 港灣擴張整備 시멘트工場 石油化學製品工場

사우디는 그들 國民 自身の 勞働力은 勿論이거니와 특히 技術, 技能 專門知識을 具備한 人的資源이 不足하다. 이 때문에 사우디에서는 現在 約 150萬名의 外人部隊가 活躍하고 있다.

이것은 사우디의 勞働人口와 거의 같은 人數이다.

우리나라의 現代建設만 하여도 78年 2月 現在 茱巴 鹽産業港 工事を 위시한 各種 工事 등에 技術者 技能 人力 등을 합쳐 1萬餘名 정도가 활약하고 있다.

政府의 顧問, 會社役員 및 技師(技術士) 등의 일은 大體로 美國 및 西유럽 등의 先進國 中堅公務員敎職 員商店員은 이집트, 팔레스티나, 印度, 파키스탄, 勞務者는 北에멘, 이집트, 印度, 파키스탄, 우리나라 등이 많다.

그 中에도 地에멘인은 50萬名 이집트는 25萬名으로 거의 絕對數를 차지하고 있다.

카이로—리야드間에는 連日 잠보·갯트機가 運行되고 있는데 乘客의 거의 大部分이 이집트의 勞働者이다.

毛布 1장에 센들을 신은 모습은 마치 버스를 타고 이웃 동네로 나들이 가는 정도로 輕便하다.

月收는 150달러 정도이며 11個月 作業하면 1個月의 休暇가 있고 往復航空料金도 支拂된다고 한다.

電報局에서 테렉스 操作을 하는 技能工인 파키스탄 青年은 休暇, 旅費條件은 같은데 宿舍供與條件으로 月收 450달러가 되어 파키스탄 本國의 10배에 가까운 待遇라고 한다.

最近에는 道路工事 등 土木現場에 技士로 부터 勞務者까지 美國, 西獨, 日本, 韓國, 印度, 아랍諸國外에 泰國, 필리핀까지 26個國의 사람들에 依하여 作業을 하고 있는데 마치 사우디의 國土建設은 유엔이 大舉協力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하지만 프로젝트의 거의가 政府에 의한 턴키·베이스(turn key base) 即 一括 請負方式이며 그 외에 民間베이스로서의 參與 및 投資에 대하여도 相當한 自由가 있는 것 같다. 合作事業도 사우디側이 20~25%의 資本參加로 可能한데 基本的 承認에 2個月 정도며 設立手續完了까지 半年以上 所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25% 以上인 때에는 投資優待 措置對象이 되고 工業開發基金(Industrial Development Fund)의 長期低利貸付도 期待할 수 있다고 한다.

法人稅 등의 事業關係에서는 1950년의 法令 第1370~3321號를 中心으로 100에 가까운 政令만 通達을 詳細히 檢討할 必要가 있다고 한다.

利益送金は 現在 別 다른 規制는 없다. 雇傭에 있어서는 사우디인에 우선권이 있고 다음이 아랍以外的의 모슬렘 다음이 其他人으로 決定되고 있다.

하지만 求人廣告가 있어도 사우디인은 應募하지 않는다. 어떤 지방 日刊紙에는 "사우디에는 勤勞階級은 없다. 많은 家庭들은 TV나 보든가 車를 타고 安樂한 드라이브를 하는 것을 좋아하고 勞務作業을 外國人에게 委任하고 있다.

특히 많은 青年들은 나는 누구의 子息이니까 勞働을 할 수 없다 하여 勞働을 拒否하고 있다.

이 나라 사람으로서 責任을 自覺하여야 한다"고 批判하고 있다.

따라서 當分間은 國土建設에 不可缺한 것은 外人 勞働力이지만 78年初부터 처음으로 外人의 入國을 規制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사우디는 外人 依存狀態에서 技術人材 養成에 특히 注力하고 있다.

5個年計劃에서는 國民, 中高校 就學生의 數가 倍增하고 있다.

人材養成의 協力은 美國에 要請하고 있다. 美國係 石油會社인 ALMCO는 다카란에 石油大學을 創設하여 최신의 研究設備를 하고 있으며, 高校生의 大部分이 美國 留學을 希望하고 있다.

그래서 中學校부터 每週 6시간의 英語教育을 하고 있는데 아라비아語와 같은 時間數이다.

故 파이잘 國王의 八王子 中 7名이 美國에 留學하였고 高級 公務員 中에서도 留學生이 많다. 現在의 留

學生數는 8千名, 歸國한 人材는 3萬名이라 한다. 國民 200名當 1人의 割合이다.

官廳 學校의 適當 休日은 2日制이고 學制는 6.3.3.4制로 벌써 美國式 生活基盤이 씩트고 있다.

또한 1977年 12月 現在 現代建設이 實施中인 9個工事 中 주바일 海上基地, 陸上工事, 動員宿所工事의 工事監督廳이 모두 美國 陸軍工兵團이며, 國土建設事業面에서는 美國의 設計 監督의 比重이 큼을 알 수 있다.

現代建設이 主로 擔當하고 있는 아라비아灣岸, 주바일 일대에는 이 나라 최대의 工業地帶 建設이 始作되고 있다.

石油化學工業을 中心으로 하며 原料는 南쪽 約 100 km 떨어진 世界 最大의 가와루 大油田에서 送油된다고 한다.

넓고 끝이 없는 사막에 數百의 組立式 건물이 建造되고 美國人 設計用役 技術團이 居住하며 그 준비를 하고 있었다.

工業地帶 넓이는 約 600km<sup>2</sup>, 約 15年 後에는 주변에 17萬名의 住宅地帶, 空港, 鐵道가 完成될 展望이다.

아라비아 半島를 橫斷하여 아라비아灣岸의 石油를 紅海沿岸의 工業地帶 豫定地인 안부까지 送油하는 1,200km의 파이프라인 부설, 리야드에서 紅海沿岸으로의 鐵道建設, 리야드 新空港 建設 등 大工事が 契約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急速한 건설은 矛盾을 招來하기 쉽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인플레이션이다. 약간 멋있는 小型 單獨住宅의 月賃가 200萬원, 中級 호텔의 1泊에 3萬원, 正確하지도 않은 地圖 1장에 3,000원이나 된다.

開發과 함께 土地投機도 旺盛하다.

제타市 郊外의 砂漠 땅값이 4~5年前보다 10倍 以上 폭등하였다고 한다.

불에 便乘한 價格以上도 많은 모양이다.

洋服이 政府査定價의 2倍라 한다.

사우디 정부는 인플레이션 억제에 全力投球하는 데 비싼 가격이나 正札없이 파는 商人에는 15萬원에서 200萬원 以上の 罰金이나 一時 閉店命令을 하고 있다.

여기에도 自費로 閉店命令까지 新聞廣告를 내어야만 한다고 한다.

그런데 低所得層의 生計費를 기준으로 한 物價上昇은 75, 76年 모두 30%를 초과하고 있고 현재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여기에 原油의 價格引上으로 1日 約 1億달러가 外國에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이 때문에 또한 인플레이

이점은 더욱 心理的 刺激을 받고 있다 하겠다.

#### 4. 中東의 金融·貿易中心化하는 바레인國

石油과 오일달러로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勢力을 가진 中東 여기에 있어서 페루시아灣 西岸에 있는 바레인國은 大小 33個의 群島로 이루어진 섬나라이다. 國土總面積은 598km<sup>2</sup>로서 東쪽에는 아라비아半島에서 北쪽으로 突出한 카다루半島와 海峽을 그 사이에 두고 서로 對面하고 있으며 西쪽은 海峽사이 18km의 거리를 두고 사우디·아라비아의 東岸과 서로 對面하고 있다.

主要 섬은 바레인島(563km<sup>2</sup>)로서 그 周圍에 무하락구島, 시도라島가 있다. 우리 一行이 到着한 國際空港은 무하락구島에 있으며 시도라島에는 石油輸出港이 있다. 이 섬들은 모두 人工橋梁으로 바레인島에 連結되어 있다.

바레인島는 北緯 26度부근이고 南北의 길이는 약 50 km, 東西 12~16km으로서 石灰岩과 砂丘로 된 섬이다. 中央部 西쪽에는 煙氣의 山이라고 말하는 海拔 150m의 丘陵地帶가 있다. 耕作可能한 地帶에는 湧泉水나 人工井戶가 있고 빠나나나 無花果가 栽培되고 있다.

首都 마나마도 이 地域에 있다. 丘陵地帶는 옛날 荒涼한 不毛地였는데 現在는 이 一帶에 石油가 產出되고 있다. 바레인島 주위에는 이외에 刑務所가 있는 小島 3개, 西쪽에는 보다 큰 운무·안·나산島가 있다. 바레인島에서 수km떨어진 카다루半島가 가이에는 호와루群島가 있어서 16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太古時代에는 페루시아灣을 向하여 아라비아半島로부터 陸續化되어 있던 것이 오늘날 8개의 작은 섬으로 分離되어 바레인國을 形成하게 된 것이라 한다.

氣候는 大體로 4個月씩 區分되고 있다. 가장 좋은 季節은 12월부터 3월까지로 比較的 시원하고 北西에서 西風이 불어서 지베기 좋다고 하는데 우리 一行은 多幸이도 이 季節인 1月 下旬에 여기에 도착하게 되었다.

4,5月 그리고 10,11月은 그린데로의 지낼 수 있는 季節이나 6월부터 9月은 乾燥한 砂漠地帶特有的 酷暑를 수반하는 여름으로 여기에서 至毒한 濕度로 나무그늘에서도 40°C를 초과하는 일이 많다 한다.

무하락구市 下水道工事を 擔當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現代建設 土木技術者 한 사람은 夏期에 測量을 하였는데 작업도중에 남방사쓰가 금방 땀으로 젖어서 8시간 사이에 세번이나 바꾸어 입었을 정도라 한다.

降雨가 있는 季節은 年間平均 2日半으로 降雨量은

平均 60~100mm라고 한다. 페루시아灣 岸에서 가장 먼저, 1932年 石油埋藏이 確認된 곳이 바레인國이라 한다. 產油의 피이크는 그로부터 38年後인 1970년까지 계속되었으며 有名한 石油波動 때를 벌써 바레인의 石油生産은 下降狀態로되어 잘못하면 하품을 해야할 이 나라의 精油工場을 사우디로부터 파이프·라인으로 흘러오는 原油로서 겨우 全日稼動을 유지하고 있다.

즉, 產油國이면서 結局은 페루시아灣岸 唯一의 原油輸入國으로 되고 말았다. 推定埋藏量은 3億 6千萬배럴이라 하는데 이 數字自體가 아랍中東 13個產油國中 가장 下位임을 말하며 年間 2,600萬배럴의 生産을 계속하면 15年後에는 이들 油田도 속이 텅비게 될 것이다. 外海의 海中石油資源이나 天然가스探査도 하고 있겠지만 採油한지 半世紀만에 바레인에 있어서 石油붐劇은 終幕이 되는데는 틀림이 없다. 1971年의 國勢調査에 의하면 人口의 약 80%는 바레인인(아랍인에 屬함)이고 오만人, 印度人, 파키스탄人, 이란人, 英國人이 居住하며 75年末에는 總人口가 26萬人에 도달하였다고 한다.

宗敎는 大部分이 이슬람敎이며 선니派와 시이아派로 半半의 比率이며 首長인 하리파王家는 선니派를 信奉하고 있다. 公用語는 아라비아語이나 英語도 잘 通한다. 사우디에 比해서 이슬람敎戒律이 若干 解馳되어 있다.

이 나라 最大의 아와리油田에서 치솟아 불타는 火焰은 밤에도 그 附近은 낮과 같이 하고 시도라精油工場은 페루시아灣岸名產油國의 工業化모델케이스로 할 정도로 큰 工場이지만 앞으로 검은 黃金 即, 原油가 다 타고 난 후에는 무엇이 남을지 참으로 이 나라의 未來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古代바비로니아·앗시리아文化가 繁昌할 때부터 有力한 貿易中心地로 歷史책에 있는 港灣都市의 遺跡이 섬의 東北기슭에 있는 首都 마나마의 西쪽郊外에서 發見되었다 한다. 페루시아灣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쿠웨이트와 마찬가지로 그 옛날에는 회람帝國, 가까이는 파스크·다가마의 포르트칼의 船團이 進出하여 城市를 築造하고 921년부터 1602년까지 그 支配하에 있다가 眞珠를 둘러싼 싸움으로 이란支配下에 있다가 아랍·이슬람이 된 것은 1783년부터라 한다.

옛부터 바레인은 眞珠의 產出國으로서 유명하였다고 한다. 또한 良質의 물을 가진 까닭에 地理的으로 灣岸어는 都市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모양이다. 1783년에 아라비아半島 出身인 알·하리프가 우도부族을 引導하여 이란人을 逐出하고 바레인을 支配하고 1861년에 바레인의 獨立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를 承認한

英國과의 사이에 奴隸貿易의 廢止, 海賊行爲의 禁止등을 條件으로 平和友好條約을 締結하고 다음에 1880年 英國의 同意없이는 領土의 割讓이나 他國과 外交關係를 가지지 않는다는 條件을 締結하고 英國保護國이 되었다.

1932年 石油生産이 開始되자 1954年 利權料 改定으로 石油收入이 增大하여 敎育, 公衆衛生面에서 바레인의 近代化는 進展되어 首都 마니마의 모습은 一變되었다고 한다. 1968년부터 71년까지 英國의 스에즈以來부터의 兵力撤收發表와 함께 灣岸諸國의 政治變動으로 1968年 2月 灣岸 首長國의 聯邦結成이 成立되고 바레인도 여기에 참여하였다. 유엔調整으로 住民調査가 실시되고 아랍·이슬람獨立國으로 認定된 것은 1969年이지만 1971年 8月 14日 이사首長의 獨立宣言으로 完全한 主權國이 되었다고 한다.

그 사이에 冬季의 나무그늘아래서도 氣溫이 40°C를 넘는 苛酷한 自然環境에서 아랍·이슬람은 일에도 일을 부지런히 하였다. 四面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를 찾아서 眞珠를 採取하고 往來하는 船舶修理에서 造船까지 손을 대고 오아시스에서 쌀, 보리, 雪糖수수, 茶까지 栽培하였다. 眞珠採取夫 約 2萬人, 漁船 1,000척의 기록이 1949년에 남아 있다.

하지만 라디오, TV, 自動車와 함께 미끼모도 養殖眞珠를 가지고 日人이 登場하자 바레인의 眞珠採取夫는 1,000名, 즉 1/20로 下降하는 經濟不況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같은 時期에 石油가 登場하여 “앗라·아구바루”(神은 偉大하다)의 기도는 이래서 더욱 高潮되었다 바레인의 아랍·이슬람은 勤勉하다. 또한 工業化되었지만 石油聯關産業만을 置重하지 않는다. 第1段階, 35萬噸級, 第2段階, 50萬噸級の 오일·탱커用 드라이도크의 建設프로젝트에다, 아루미精鍊工場(濠州參與)은 이 나라 將來發展의 열쇠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 드라이·도크建設은 유럽·美國 6個會社外에는 우리나라 現代建設이 參與하였다.

바레인은 有限한 資源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것이 竭장난후의 다음의 無限한 資源을 현재 찾는 것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마나마市 기슭에 미나·스루민港이 있다. 英國支配 當時는 海軍基地였던 까담에 英國風의 建物의 別天地가 여기에 있고 지금 港灣局이나 貿易關係官公廳의 區域으로 되어 있다. 中心部에 모스크나 城터를 볼 수 있고 內陸側은 映畫館 등 繁華한 거리가 있고 設中央部에서 北쪽 郊外는 椰椰子圈의 綠地가 있었다. 이 近處에 “가나드”라 하는 地下水路가 있어서 아직도 펌프로 揚水하여 地下水가 給水管을 통하여 市街로 四通八達되고 있다.

바레인은 憲法과 國會를 가지고 알·하리파왕家の 世襲에 依한 立憲君主國이다. 1972年 12월에 처음으로 總選舉가 실시되어 開催된 國會(公選 22名, 首長指命 7名, 首長任命閣僚 11名으로 成立)가 立法權을 가지나 審議에 많은 時間이 所要되고 立法自體가 타이밍에 맞지 않아서 遲滯되는 일이 많고 國費를 浪費한다는 理由에서 1975년부터 首長에 의한 直接施政體制로 되었다. 그 사유는 國會나 政府사이의 社會福祉政策, 勞働基本權, 政府의 治安維持를 위한 行政措置의 存穢, 治安維持法의 制定에서 오는 對立關係 등 때문이라 한다.

外交關係는 從來부터 사우디·아랍關係를 基軸으로 하고 이란, 이락과 協調는 도모하면서 페루시아灣岸諸國과 友好關係를 촉진하는 것을 基本으로 하고 있다.

1975年 3月 사우디의 파이살 前國王의 突然한 暗殺은 이 나라의 內外政局에 큰 影響을 준 모양이나 現在 石油生産이 僅小한 까담에 貿易立國으로 페루시아灣岸의 金融과 貿易中心地가 되고져 灣外的 各國과도 國際關係를 幅 넓게 開拓하고 있다. 印度, 土耳其, 시리아, 요르단 및 日本, 우리나라와도 活潑한 訪問 및 招待外交를 展開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韓國銀行도 支店設置를 하고 있다.

또한 바레인은 灣岸各國과의 經濟協力 強化도 圖謀하고 있다. 第1次國會에서는 首長은 灣岸諸國과의 經濟協力과 統合의 必要性을 主唱하고 75年 5月 하리와 首相은 이란을 訪問하여 이란, 이락, 사우디의 3大國의 協助아래 灣岸諸國頂上會議開催를 提唱하고 6월에 아랍 首長國聯邦, 쿠웨이트, 카다루, 바레인의 4個國이 달려 및 스타팅과 直接 連結됨이 없는 灣岸諸國의 統一通貨發行에 대하여 原則的 合意가 되었으며 다음 11月에는 사우디, 쿠웨이트, 바레인, 카다루, 아랍首長國聯邦, 오만에 의한 灣岸國際銀行이 設立되고 76年 1월에 이락도 加入하였으며 같은 11월에 리야드에서 쿠웨이트, 사우디, 바레인, 카다루, 아랍首長國聯邦 및 이락의 6國財政長官會議에 있어서 聯合아랍船舶會社의 設立에 基本的合議가 이루어졌다.

다시 1976年 1月 아부다비에서의 海灣諸國情報會議(아랍首長國聯邦, 쿠웨이트, 사우디, 바레인, 카다루, 오만 및 이락)에서 灣岸諸國의 TV共同프로 製作機構를 쿠웨이트에 設立하는 協定의 締結, Arab Gulf News Agency라는 이름의 通信社를 바레인에 設立하는 것, 灣岸域內의 放送, TV訓練센터를 카다루에 設立하는 것, 灣岸諸國무두 TV放送網을 確立하는 것 등을 合意하였다. 事實 1975年 現在 確認石油埋藏量은 34億배럴 產油量 22.6百萬배럴, 精製量 89百萬배럴로서 年石油